

시·소설속 명문 배달 이메일 서비스 풍성



시인 안도현씨 소설가 성석제씨



인터넷 카페 '아침올림'

名文으로 여는 아침

네티즌의 아침이 풍요로워진다. 문인들이 고른 시나 소설 속 명문장 또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예술인의 글 등을 아침마다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다양해진 것이다.

에게 참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석제의 문장 배달'은 성씨가 고른 소설 또는 산문의 한 대목을 작가와 배우, 성우 등의 목소리로 들려주게 된다.

환(이화여대 교수), 안도현(시인), 윤대녕(소설가)씨의 글이 배달됐다. 카페에 가입해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요일에만 받을 수도 있다.

문학나눔 홈페이지 '안도현 시 배달' '성석제 문장 배달' 인터넷 카페 '아침올림' 예술인들 글 네티즌에 배달

유진문화재단 학생음악경연대회 성료

피아노 여인경양 대상



과 같다. ◆성악 ▲최고상=손채원(리더스 하바 유치원) 박정현( ) 이소명(광주인성고 3년) 조설원(광주예술고 3년) ◆피아노 ▲최고상=박은서(수문초 2년) 최시은(화정남초 3년) 이재준(정양초 3년) 양보미(광주외국인학교 4년) 김

예술(군산지곡초 6년) 박소연(금부초 6년) 김지연(금당중 3년) 최유리(송원여고 2년) 최수연(광주예고 1년) ◆관악 ▲최고상=신시은(송원여고 3년) 이우진(전남여고 3년) ◆현악 ▲최고상=마승연(리더스 하바 유치원) 이서빈( ) 류우진(신암초 2년) 박소현(광주서석초 3년) 류진서(만호초 4년)

(재)유진음악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7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가 28일 호남신학대학교 음악관에서 열렸다. 성악·피아노·관악·현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경연에서는 피아노 부문에 출전한 여인경(전대사대 부고 2년·사진)양이 전체 대상을 받았다. 부문별 최고상 수상자는 다음

제52회 호남예술제 본선 진출자

Table listing winners and participants for the 52nd Honam Arts Festival. Categories include Piano Intermediate (피아노 중등부), Piano Advanced (피아노 고등부), and Choir (창의정합). Names and schools are listed for each category.



닭은꽃, 4·7회 비엔날레

"만약 '내손으로' 예술감독을 선출했다더라면 '벼락치기 비엔날레'는 없었을 텐데..." 지난 2002년 3월28일, 4회 비엔날레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프레오폰에서 당시 김포천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은 어수선한 전시장을 둘러보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의 고백처럼 4회 비엔날레는 전시장 인지 공사판인지 분간하기 힘든 분위기에서 막이 올랐다. 국내외 미술전문가들이 참석한 프레오폰은 비엔날레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엔날레의 치부를 낱알이 보여주는 현상이 돼버렸다. 이 때문에 전시 컨셉이 신선하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4회 대회는 비엔날레 역사상 '시간관리'에 실패한 대회'로 기록됐다. 여기에는 전임 이사회가 차기 이사회로 미뤄도 될 비엔날레감독선출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 화근이 됐다. 3회 비엔날레 폐막과 동시에 임기가 끝나는 이사회가 4회 비엔날레의 핵심포스트인 예술감독을 앞당겨 선출한 것이다(재단은 비엔날레를 치르는 조직의 특성상 이사회의 임기가 2년이다). 4회 비엔날레의 수장과 이사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달력 예술감독만 뽑아 놓다 보니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무엇보다 4회 비엔날레의 이사회와 예술감독간의 시간차로 인한 더딘 행보가 문제였다. 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재단 이사회와 예술감독의 4회 비엔날레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커 의견을 수렴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 게다가 예술감독의 잦은 전직구성반복은 준비일정에 적신호를 초래했다. 시간을 절약한다고 서두른 일이 오히려 갈 길 바쁜 비엔날레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2008 광주 비엔날레가 시계바늘을 5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듯하다. 지난 25일 국내감독을 뽑는 이사회에서 비엔날레 호에 새로 승선한 일부 신임 이사들이 감독후보들의 전시컨셉이 재단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냐며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자"고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지난 5개월 동안 재단이 올린 해왔던 비엔날레 내·외국인 공동감독제 선인 절차는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사실 이 같은 파행은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가 새로운 인물들로 짜여질 차기 이사회에 넘겨도 될 일을 충분히 내부 협의 없이 밀어붙였다. 일각에서 새 이사회 인용이 갖춰지면 모든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감독선임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감독선임을 빠른수록 좋다'는 주장에 밀렸다. 그 바람에 인력풀의 한계와 후보검증 소홀로 '적임자'를 찾지 못해 감독선출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예술감독선임은 비엔날레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비록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감독선임이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지만, 4회 대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예술감독 선임을 성공비엔날레의 첫 단추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최성남씨 대금연주회

오늘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대금연주자 최성남(화정남초교 교사·사진)씨의 6번째 연주회가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대금 연주곡 '어부바'(신나라 레코드) 출반을 기념해 마련한 음악회다. 김동진·박종선씨 등에게 대금과 아쟁을 사사한 최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금 산조



'자주 고를' '저녁 연기 금의환양' 등을 들려준다. '어부바'에는 대금과 기타·피아노·신디사이저가 어우러진 다양한 연주곡들이 실려 있다. 문의 062-373-202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Movie Guide) featuring 'Happy Time' and '영화안내'.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showing movie listings and special events.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with movie listing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featuring movie listings and special screenings.

Advertisement for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with movie listings and showtimes.